

# Multilingual Electronic Newsletter

多言語メールマガジン

かごしま南の風便り

Kagoshima Southern Wind Tidings



VOL.194

## 1 국제 교류원의 칼럼(가고시마현 국제교류원 : 토우 레이카)

- 중일우호의 길을 따라 -사츠마 반도 여행-

## 2 지사 관련 새 소식

- 사츠마번 영국유학생 기념관 개관 10주년 기념 축하행사에 출석하였습니다. (11월 2일)
- 홍콩 가고시마 클럽 및 홍콩 현인회와 만찬회를 개최하였습니다. (11월 6일)
- 재 홍콩 일본국 총영사관을 방문하였습니다. (11월 7일)
- 홍콩항공을 방문하였습니다. (11월 7일)
- 「제 24회 가고시마·홍콩 교류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11월 8일)
- 「제 24회 가고시마·홍콩 교류회의」지사주최 리셉션을 개최하였습니다. (11월 8일)
- 중국 주 후쿠오카 총영사가 방문하였습니다. (11월 15일)

## 3 가고시마 관광 정보

- 야고로돈 마츠리 (11월 3일)
- 오히라 마츠리 (11월 2일·3일)

---

## 국제교류원의 칼럼

---

### ●중일우호의 길을 따라 -사츠마 반도 여행-●

—가고시마현 국제교류원 토투 레이카 (중국출신) —

현내 중국인 유학생들을 메인으로 60 명이 참가하는 당일치기 버스투어에 통역 및 안내를 위해 다녀왔습니다. 가고시마현과 시의 중일 우호 협회가 주최한 이 버스투어는 경치 좋은 스팟이 많은 사츠마 반도 남부를 돌아보는 코스로 구성되어 중국과 일본, 특히 가고시마와 관련있는 여러 곳을 견학을 하며 즐거운 추억을 많이 만들고 왔습니다.

아침 7시반에 가고시마 대학 도서관 앞에 집합한 우리는 치린가시마를 전망할 수 있는 미치노 에키(일본 국도의 휴게소 같은 시설) 이부스키의 「사카나칸(彩花菜館)」을 향해 출발하였습니다. 치린가시마와 육지를 잇는 모래 길은 시기가 맞지 않아 볼 수 없었지만, 긴코만을 흐르는 해류가 부딪히며 해류의 경계에 모래와 자갈이 퇴적하여 만들어진 길이 바닷속에 있다고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신기한 가고시마의 자연에 마음이 끌렸습니다.

다음은 반도 최남단에 있는 나가사키바나에 방문하였습니다. 이곳은 「사츠마의 후지」라고 불리는 가이몬다케 외에도 일본의 옛날 이야기에 나오는 우라시마 타로의 석상과 공주를 기리는 용궁



용궁신사



길에서 발견한 재미있는 간판

신사도 있습니다. 경치는 물론 길가에 있는 가게와 간판 등 가고시마의 재밌는 문화와 분위기를 즐길 수 있는 곳입니다. 저는 기념품으로 이부스키의 명물인 가스오부시를 샀습니다.

점심식사를 하러 가기 전 이케다호수에 들렀습니다. 저는 이케다호수에 관한 토막 지식과 잇시(이케다호수에 출몰한다는 전설의 괴물) 전설을 유학생들에게 전하고 대형장어를 보러 갔습니다. 이케다호수는 큐슈 최대의 칼데라호수로 이케다호수의 대형장어는 수명이 30~50 년으로 길이는 최대 2m, 무게 최대 20kg 에 달합니다. 이런 멋진 환경에서 자란 자연산 장어는 정말 맛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



반도코로바나 해안 암초에 오른 나

점심은 회전식 소면나가시의 발상지인 도센쿄(唐船峽)에 갔습니다. 도센쿄는 야외지만 산 속에 위치하여 있어 여름에도 시원하여 식욕을 돋게 해 특히 인기가 많습니다. 겨울에는 난방 시설을 갖춘 실내 자리도 있어 따뜻한 환경에서 소면을 먹

는 것도 즐거웠습니다. 중국 동북지방의 영하의 혹독한 겨울에 방 안에서 아이스크림을 먹는 풍경과 닮았습니다.



행복의 종

식사 후에는 반도코로바나 공원에 갔습니다. 유학생들은 내륙 출신이 많아, 이렇게 가까운 거리에서 바다를 보는 것이 처음인 학생들이 많았습니다. 바다와 연결되어있는 숲의 길을 따라가다보니 갑자기 나타난 해천일색의 개방감과 웅대함에 놀라 다들 무심코 “와~” 하고 이구동성으로 소리를 냈습니다. 우뚝 솟은 가이몬

다케를 배경으로 사진을 찍으며 가고시마에서 즐거운 청춘의 추억을 남겼습니다.

그 후, 감진 기념관에 이동하였습니다. 당의 고승으로 나라 도쇼다이지를 세운

감진은 쇼무 천황의 초대를 받고 일본에 도향하려고 하였지만, 여러 위기에 봉착하여 5 번의 도향 실패로 끝내 양쪽 눈을 실명하였습니다. 그렇지만 6 번째 일본 도향에 도전한 감진은 753 년 현재 미나미사츠마시 보노츠초 아키메에 상륙하여 일본에 불교 계율이나 약학에 관한 지식을 전하였습니다. 감진의 출신지인 장쑤성 양저



감진 기념의 비

우의 대명사라는 절에서는 감진 기념관을 세워 중일 우호 교류사의 증거로 삼고 있습니다. 감진 기념관으로 가는 길은 구불구불하고 좁은 산길로 되어있어 감진의 위대함을 실감하였습니다. 관내에서는 감진이 도향했을 때의 이야기와 그 생애에 대한 전시품, 대형 화면으로 송출되는 영상 등을 보며 공부를 할 수 있었습니다.

감진 기념관은 규모가 작은 기념관이지만 그럼에도 끊임 없는 노력으로 곤란을 극복한 감진 화상의 정신은 양국의 우호 교류를 위해 힘쓰고 있는 사람들을 격려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감진 기념관을 견학 한 후에는 근대 일본에 있어 소주 문화의 기반을 닦은 쿠로세 토우지 장인의 마을, 카사사에 갔습니다. 마침 일본의 「전통주 만들기」가 유네스코 무형 문화유산에 등록된 좋은 타이밍에 방문하였습니다. 가고시마의 소주 만들기는 30 년대에 쿠로세 토우지라고 하는 장인들이 나타났고, 그들은 가고시마 현내를 시작으로 큐슈와 간사이 방면 등 일본에 소주를



중국의 마오타이주

만드는 기술을 전파했습니다. 관내에서는 소주 전래와 소주 만들기 역사와 기술에 관한 문헌과 도구가 전시 되어 있었으며, 누룩을 만드는 것, 1 차 발효, 2 차 발효, 증류, 저장, 포장까지의 공정도 볼 수 있었습니다. 중국의 증류주라고 하면 먼저 떠오르는 것은 고량, 옥수수, 감자, 고구마등의 곡물을 원료로 하는 50 도가 넘는 백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인 학생은 술을 먹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토우지의 마을 카사사에서 유학생들은 가고시마의 소주를 시음하여 그 단 맛과 향을 음미할 수 있었습니다.



가고시마의 소주



전시관 입구에 놓여있는 많은 술독

해가 저물기 전 「야스라기노 사토 카와나베」라는 미치노에키에 들러 지역 특산품을 샀습니다. 평소에 잘 사지 않는 간식이나 조미료, 고기까지 길게 줄을 서서 다양한 특산품을 샀습니다. 중국인 유학생들에게 있어 가고시마의 경치와 참가자들 간의 교류, 견학지에서 열심히 경청하는 모습, 사진에 찍힌 미소, 전부 가고시마에서 좋은 추억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당일치기 버스투어는 굉장히 빠듯한 스케줄이었지만 가고시마의 멋진 자연과 맛있는 음식을 만끽하고 많은 것을 배운 하루였습니다. 이번 중일 우호의 길을 따라간 여행이 앞으로 양국의 우호 교류로 이어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

## 지사의 움직임

---

### ●사츠마번 영국 유학생 기념관 10주년 기념 축하행사에 출석했습니다. (11월 2일)●

사츠마번 영국 유학생 기념관 개관 10주년 축하행사가 열려, 내빈으로서 축하를 하였습니다. 이치키쿠시키노 시와 관계자분들의 노력으로 개관 10주년을 맞은 것에 대하여 깊은 경의와 감사를 전하였습니다. 현으로서도 이치키쿠시키노 시 뿐만아니라 메이지유신과 관련있는 관광자원을 가진 관련 시정촌 및 단체 여

러분들과 연계하면서, 남쪽의 보물 가고시마의 매력 중 하나인 역사적 자산을 국내외에 알리고 싶다고 생각했으며, 사츠마번 영국 유학생 기념관이 사츠마 스튜던트의 공적을 알리는 거점으로써 앞으로 더욱 활약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축사를 하는 모습

## ●홍콩 가고시마 클럽 및 홍콩 가고시마 현인회와 만찬회를 개최하였습니다. (11 월 6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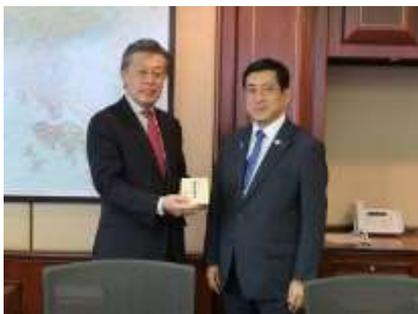
홍콩의 홍콩 가고시마 클럽 및 홍콩 가고시마 현인회의 여러분들과 만찬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홍콩 가고시마 클럽은 가고시마와 홍콩을 연결하는 징검다리로서 가고시마의 PR 활동과 일본어 연수생의 지원, 양 지역의 학생교류의 실시 등 가고시마와 홍콩 교류촉진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은 홍콩 가고시마 클럽 설립 당시 부터 회장을 맡아주셨으며 올해 2월 서거하신 고 미조구치 씨가 이어 온 가고시마와 홍콩의 교류를 더욱 발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만찬회에서 가고시마를 방문하고 싶다는 의견을 주셨으며, 음식과 관광, 전통적 공예품과 더불어 새로운 방식으로 우리현의 매력을 알릴 수 있었습니다.



▲만찬회에서 인사하는 모습

●재 홍콩 일본국 총영사관을 방문하였습니다. (11 월 7 일)●

재 홍콩 일본국 영사관을 방문하여, 가고시마 홍콩 교류회를 시작으로 홍콩과 우리 현의 교류 상황을 설명하였으며 홍콩의 경제 상황 등에 대하여 의견 교환을 하였습니다. 오카다 켄이치 대사는 우리 현의 와규와 수산물, 소주 등이 홍콩의 거대 마켓에 진입할 수 있도록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앞으로도 홍콩에서 우리 현산품의 인지도 향상과 시장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오카다 켄이치 대사와



▲재 홍콩 일본국 총영사관 관계자와

●홍콩항공을 방문하였습니다. (11 월 7 일)●

현의회와 현내 경제단체의 대표들로 편성된 「제 24 회 가고시마·홍콩 교류회의」의 방문단이 홍콩 항공에 방문하였습니다. 올해 3월 홍콩 항공에서 운항하는 가고시마-홍콩선이 취항 10주년을 맞은 것과 지금까지의 운항에 대하여 감사를 전

하면서 노선의 확충의 요망 등을 하였습니다. 홍콩 항공은 가고시마-홍콩선을 12월 23일부터 1편 증편하여 주 4편 운항하게 된 것을 표명해주었으며 노선의 안정적인 운항 및 이용 촉진 등에 관하여 의견 교환을 하였습니다.



▲방문단과 홍콩 항공 관계자가 의견을 교환하는 모습

●「제 24 회 가고시마 · 홍콩 교류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11 월 8 일) ●

제 24 회 가고시마 홍콩 교류회의 라운드 테이블 미팅을 홍콩에서 개최하였습니다. 홍콩과 가고시마는 1980 년에 시작된 교류회의 이후 40 년 이상 이어 오고 있으며 경제, 관광, 예술, 문화, 청소년 등 폭 넓은 분야에서 교류를 이어 오고 있습니다. 교류회의에서는 아시아지역의 국제 비즈니스 거점으로서 발전을 계속해 온 홍콩 정부 관계자 및 각 분야의 대표 분들과 가고시마 측의 현의회 대표와 경제단체 대표 등이 함께 의견 교환을 진행하여, 그 결과 앞으로도 폭 넓은 교류를 이어 가기로 하였으며, 다음 번 교류회의는 2 년 후 가고시마에서 개최할 것을 합의하였습니다.

홍콩은 부유층이 많으며 높은 구매력과 일본산품에 대한 높은 지명도를 갖고 있고 관세와 규제가 적을 뿐만 아니라 홍콩 항공이 운항하는 가고시마-홍콩 정기항공노선을 통해 홍콩과 가고시마 간의 활발한 인적교류가 행해지고 있어 현산품의 시장 개척과 관광 유치가 유망한 시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교류회의를 계기로 앞으로 가고시마와 홍콩의 연계, 협력 관계가 더욱 강화되기를 기대합니다.



▲홍콩 정부 관계자와 각 분야의 대표들과 ▲제 24 회 가고시마 · 홍콩 교류회의의 모습

●「제 24 회 가고시마 홍콩 교류회의」 지사주최 만찬회를 개최했습니다. (11 월 8 일)●

홍콩 교류회의의 출석자와 재 홍콩 일본국 총영사, 식품, 유통, 관광, 항공관계자 등 150 명이 넘는 분을 초대하여 만찬회를 개최하고 가고시마 와규와 방어 등 가고시마의 자랑스런 음식을 대접하였습니다. 또한 가고시마의 본격소주나 차, 흑초를 제공하는 부스 외에도 우리 현의 관광에 관해서도 홍보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자리나 각종 프로모션을 통해, 우리 현산품의 인지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더욱 수출 확대와 고객유치로 이어가겠습니다.



▲만찬회에서 인사하는 모습



▲관계자 여러분들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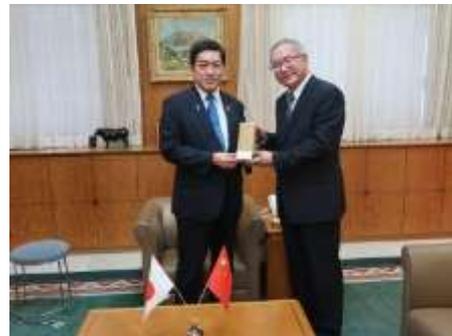
●중국 주 후쿠오카 총영사가 방문하였습니다. (11 월 15 일)●

중화인민공화국 주 후쿠오카 총 영사관의 양칭동 총영사가 현청을 방문하였습니다. 양칭동 총영사는 가고시마현과 중국은 지리적, 문화적, 역사적으로 가까운 관계에 있다는 것, 가고시마현은 현내 주재 중국인과 가고시마를 방문하는 중국인 관광객이 안심, 안전하게 생활하고 여행할 수 있는 장소이며 앞으로도 긴밀한 관계를 만들어 나가고 싶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시오타 지사는 중국의 장쑤성과 칭화대학과 긴 시간 동안 교류를 해 온 것과 가고시마 공항과 중국을 연결하는 정기 항공 노선이 코로나 이후 올해 운항 재개한 것을 전하면서 총영사는 물론 중국 분들이 가고시마의 맛있는 와규와 차, 소주 등을 맛보길 바란다는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총영사와 대화하는 모습



▲중화인민공화국 주 후쿠오카 양칭동총영사와

## 관광 가고시마 제철 정보

### ●야고로돈 마츠리 (11 월 3 일) ●

야고로돈 마츠리는 오히라 마츠리(가고시마시), 오샤카 마츠리(시부시시 시부시쵸)와 함께 현 3 대 축제이며 약 900 년의 전통을 갖고 있습니다. 당일 오전 1 시에 “야고돈이 일어났다!”라며 북을 치는 것으로 축제가 시작됩니다.

오전 4 시에는 「야고로돈 일으키기」가 진행되며 여기에 참가하는 것은 몸이 건강해지고 운이 좋아진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후에 진행되는 「하마우리(浜下り)」에서는 하치만신사 경내에 나타난 야고로돈이 약 3 시간동안 시가지를 위풍당당히 걸어다닙니다. 많은 구경꾼들이 야고로돈을 둘러싸며 축제 분위기가 고조됩니다.



▲「하마우리(浜下り)」의 모습

「© K. P. V. B」

## ●오하라 마츠리 (11 월 2 일 · 3 일) ●

매년 11 월 2 일 · 3 일에 텐몬칸 주변에서 진행되는 오하라 마츠리는 1949 년에 시작된 남큐슈 최대 축제입니다. 가고시마를 대표하는 민요 「오하라부시」, 「가고시마 한야부시」, 「시부야온도」에 맞춰 행렬에 맞춰 춤을 추는 「소오도리」를 중심으로 다양한 이벤트가 열립니다.

「전야제」에서는 소오도리, 오고쥬 태고 경연이, 축제 당일에는 소오도리, 오고쥬 태고 경연 뿐만 아니라 마칭밴드, 댄스 「오하라 21」등이 열려 텐몬칸 일대에 활기가 넘쳐 흐릅니다.

「오고쥬」는 가고시마 사투리로 여성을 가리키며, 용감하고 아름다운 사츠마 오고쥬 태고와 피리의 연주가 압권인 퍼포먼스입니다.



▲소오도리의 모습 「© K. P. V. B」



▲전야제의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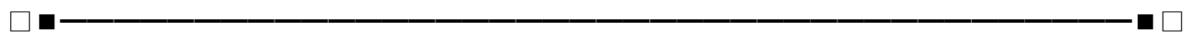
가고시마현청 홈페이지 <http://www.pref.kagoshima.jp/>



편집후기 (가고시마현 관광 · 문화스포츠부 국제교류과)

가고시마도 겨울다운 추위가 오고 화려한 일루미네이션이 거리를 장식하고 있습니다. ✨  
연말연시는 송년회나 크리스마스 그리고 신정의 준비로 정신 없지만 즐거운 시간을 지내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올해도 가고시마현의 최신 뉴스를 여러분께 전해드릴 예정이니 기대 많이 해주세요 ♡  
2025 년이 여러분들이 많은 것을 이룰 수 있는 한해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가고시마 남쪽바람소식 게시판」에서는 가고시마에 관한 화제를 다음과 같이 모집 및 게재합니  
다.

1. 가고시마 포토 갤러리

가고시마만의 매력이 담긴 사진이나 해외에서 발견한 가고시마의 사진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사  
진에 관한 간단한 설명과 함께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산더미처럼 쌓인 화산재 봉투)

2. 가고시마 생활의 지혜

가고시마의 생활에 관한 정보를 공유해 주십시오. (예: 사쓰마아게를 맛있게 먹는 법, 화산재 대  
처법)

이 밖에도 독자 여러분과 공유할 여러분의 다양한 정보를 기다립니다.

▲▽▲▽ 기사 제공 및 문의처 ▲▽▲▽

일본 가고시마현 관광 · 문화스포츠부 국제교류과

〒 890-8577 가고시마시 가모이케 신마치 10-1

TEL: +81-99-286-2306

FAX: +81-99-286-5522

↓전자메일 주소

영 어 : [cir1@pref.kagoshima.lg.jp](mailto:cir1@pref.kagoshima.lg.jp)

중국어 : [cir2@pref.kagoshima.lg.jp](mailto:cir2@pref.kagoshima.lg.jp)

한국어 : [cir3@pref.kagoshima.lg.jp](mailto:cir3@pref.kagoshima.lg.jp)

일본어 : [minami@pref.kagoshima.lg.jp](mailto:minami@pref.kagoshima.lg.jp)

본 기사의 저작권은 가고시마현에 있습니다. 무단게재와 불법복사를 금합니다.